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미국주식/주간전망)-2021 년 증시 랠리는 계속된다
 - ◇ (2021 달러/원 전망 ①)-원화 강세 대세.. 불확실성도 있어 흔들리는 밑그림
 - ◇ (2021 달러/원 전망 ②)-경상수급 vs 공격적 해외투자..당국은 건전성 관리 초점
 - ◇ (초점)-채권시장 '200 조 국채 시대' 예상..정교한 트레이딩 전략 필요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 와 싸우며 2021 년을 시작했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병원 의료진의 분주한 모습. (로이터/캘러한 오헤어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3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086.3	1.5%	6.5%	-3.5%	유로	1.2213	0.1%	8.9%	-2.3%
100엔 대비	1,050.1	1.1%	1.2%	-4.4%	엔	103.24	0.2%	5.2%	0.9%
유로 대비	1,324.5	1.3%	-2.3%	-1.3%	위안	6.5246	0.1%	6.7%	-1.3%
위안 대비	166.12	1.1%	-0.2%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30,606.48	1.3%	7.2%	22.3%
코스피	2,873.47	2.4%	30.8%	7.7%	나스닥	12,888.28	0.7%	43.6%	35.2%
코스닥	968.42	4.3%	44.6%	-0.9%	S&P500	3,756.07	1.4%	16.3%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662.14	2.8%	19.8%	15.8%
국고채 3Y	0.976%	2.6bp	-38.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35%	2.1bp	-14.5bp	-40.4bp	미국채 2Y	0.123%	0.0bp	-143.8bp	-93.7bp
국고채10Y	1.713%	3.1bp	3.0bp	-26.5bp	미국채 10Y	0.917%	-1.0bp	-99.4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8.52	0.6%	-20.5%	34.5%	한국 5Y	21.2bp	-0.3bp	0.1bp	-17.0bp
금(현물)	1,896.49	1.1%	25.0%	18.3%	일본 5Y	14.0bp	0.0bp	-3.7bp	-4.0bp
TR상품지수	2,679.87	1.4%	7.8%	4.8%	중국 5Y	27.2bp	-0.2bp	-3.5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4일(월)>

- IHS 마킷, 한국 12월 제조업 PMI(09:30)
- 기재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10:00)
- 금감원,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12:00)

<5일(화)>

- 금감원장 임원회의(09:00)
- 국무회의(10:00),
- 통계청, 11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6일(수)>

- 한은, 12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기재부, 부총리 녹실회의(07:3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차관 정례브리핑(13:15)
- 기재부, 2021.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02:00)
-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15:00)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업권 간담회(10:00)

<7일(목)>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기재부, 부총리 경제계 신년인사회(14:00)
- 한은,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12:00)

<8일(금)>

- 한은, 11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부총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10:30)
- 한은,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10일(일)>

- KDI 경제동향(1월)(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4일(월)>

-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유로존, 12월 마킷 제조업 PMI 최종 (18:00)
- 유로존, 1월 섉틱스지수 (18:30)
- 미국, 마킷 제조업 PMI 최종 (23:45)
- 미국, 11월 건설지출 (자정)

<5일(화)>

- 유로존, 11월 가계대출 (19:00)
- 미국, 12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자정)

<6일(수)>

- 중국,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12월 마킷 서비스업 PMI 최종 (18:00)
- 유로존, 11월 생산자 물가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마킷 서비스업 PMI 최종 (23:45)
- 미국, 11월 내구재 주문 수정치·공장주문 (자정)

<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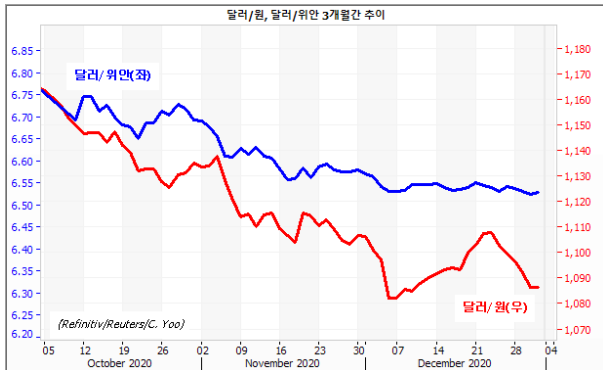
- 미국, 연준 FOMC 12월 15-16일 회의록 공개(04:00)
- 중국, 외환보유고
- 유로존, 12월 CPI·기업환경지수·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최종 (19:00)
- 유로존, 11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12월 챌린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비제조업 PMI (자정)

<8일(금)>

- 일본, 11월 가계지출 (08:30)
- 일본, 12월 외환보유고 (08:50)
- 유로존, 11월 실업률 (19:00)
- 미국,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실업률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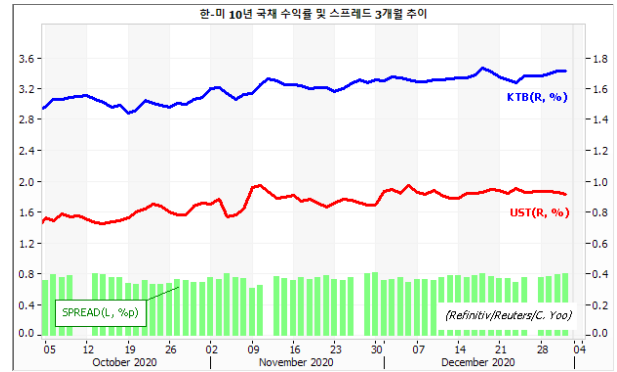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새해 첫 주 달러/원 환율은 대외 이벤트에 주목하면서 단기 방향성 탐색에 나설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070-1100 원이다.
- 국내외 코로나 19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올해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만큼 연초 리스크 온 무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원화를 둘러싼 펀더멘털도 강세 쪽으로 힘이 실린다. 지난 12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급증해 2018년 10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 하지만 이번 주중에는 연초 단기 시장 방향을 결정지를 변수로 꼽히는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결과에 따른 증시와 달러의 반응에 따라 원화가 흔들릴 수 있다.
- 작년 말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1080 원을 하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결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 또한 연초 위안화 강세가 재개될지 여부도 원화에 있어서는 주된 변수다. 역외 달러/위안은 6.5 위안 부근에 머물러 있다.
- 이번 주중 발표 예정인 주요 해외 경제지표 및 일정으로는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12월 제조업 PMI를 비롯해 12월 FOMC 회의록 및 미국 12월 고용지표 등이 있다.
- 한편 국내에서는 12월 외환보유액 및 11월 국제수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5일(현지시각) 치러지는 미국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2석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지난 11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50석, 48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석 모두 이기면, 상원의장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까지 합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
- 반대로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면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기후 변화, 증세, 건강보험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민주당의 조지아주 석권은 당장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는 재료다. 연초 스태프이 꼬이기를 원치 않는 딜러들 입장에서선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지켜본 후 뭐라도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 주초에 예정된 국고채 30년물 입찰은 그런 의미에서 큰 시험대다. 큰 변동성 재료를 앞두고 보험사 등 장기투자 기관의 수요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일단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라는 파고를 넘으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두에 뒤야 할 것이다.

(미국주식/주간전망)-2021년 증시 랠리는 계속된다

뉴욕 (로이터) - 미국 주식시장은 2020년 사상 최장 기간 강세장을 끝낸 뒤 최단기간 약세장을 거쳐 다시 반등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파티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 백신 보급 속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등 리스크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 너머를 내다보고 있다.

커먼웰스 파이내셜 네트워크의 피터 에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헤드는 지금 증시가 수년간 이어질 강세장의 초기 단계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션시장은 조지아주 선거 등을 반영해 12월보다 1월에 더 큰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 공화당이 적어도 상원의원 한 석을 차지한다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간다면 양당의 상원 의석수는 50 대 50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의회는 모두 민주당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세제 개혁 가능성이 커져 주가에 타격이 우려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21년 시장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코로나 19 백신 배포와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정책 유지 약속에 투자자들이 과감해졌다고 전략가들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두 달간 미국 주식시장 랠리는 낙관론자들조차 놀라게 했다. 11월 말 조사에서 전략가들은 S&P500 지수가 2021년 3,900 포인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0년 3,732로 약 15.5% 상승한 이후 또 한번 연간 상승을 기록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전 강세장에서는 S&P500 지수가 고점까지 26개월 동안 38%(중간값) 상승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코로나 19 이후의 회복이 이미 반영되었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형 증가 수익비율은 현재 약 22로, 장기 평균인 15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금융, 여가, 접대, 에너지 등 여러 부문에서 랠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버니스카운슬의 팀 그리스키 수석 투자 전략가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과매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광범위한 랠리

지속적인 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기업 순익 반등을 낙관하고 있다.

에셀은 "순익이 현재의 가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S&P500 편입기업의 순익은 2021년 전년비 2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부분 기간동안 S&P500 편입종목 가운데 상위 다섯개 종목이 1-9월 지수 수익의 127%를 창출하는 등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현상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었다.

비스포크에 따르면 S&P500 지수에서 기술주 비중은 현재 28%로, 1990년 이후 역사적 평균 대비 10%p 이상 높다.

QMA의 존 프라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그러나 가치주와 소형주, 미국외 주식의 부각을 언급하며 "11월과 12월에 시장이 이미 기술주와 초대형주를 넘어 넓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일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의 랠리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라빈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투자자들이 "터널 끝의 빛을 보고 있다"면서 2020년 부진했던 종목과 업종들이 2021년에는 랠리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동차가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훨씬 더 폭넓고 견실한 밸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달러/원 전망 ①)-원화 강세 대세..불확실성도 있어 흔들리는 밑그림

(※ 이 기사는 12월 28일 작성했습니다)

서울(로이터) 박예나 기자 - 올해 초부터 연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촉발한 변동성에 크게 휘말렸던 원화, 2021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갈까?

전대미문의 판데믹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는 원화의 내년 행보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코로나 19 사태 양상과 백신 접종 결과 등에 따라 경제회복 경로가 크게 달라질 만큼 불확실성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내외 기관은 글로벌 경제회복과 달러 약세라는 두 축을 근거로 원화 강세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백신 접종 시작으로 판데믹으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이 통제되면서 세계 경제가 정상 경로를 되찾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변함없는 주요국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현재와 같은 여유로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달러는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자주의 정책 영향에 위안화는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대체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확대와 달러 약세·위안 강세라는 금융 여건이 함께 전개된다면 내년 원화 강세 전망에 반기를 들기란 쉽지 않다.

▲ 힘 실리는 원화 강세 동력

원화는 글로벌 경기 변동을 대표하는 통화로 여겨지는 만큼 내년 경기회복을 전제로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교역 증가율을 올해 -9.2%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7.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ANZ는 내년 전망 보고서에서 "원화는 내년 경제 회복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기가 업사이클이었던 2012-2014년에 나타났듯이 내년 원화는 적정 가치보다 다소 높게 거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ANZ가 제시한 내년 말 달러/원 전망은 1060 원이다.

노무라는 달러 약세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중국 갈등 완화와 그로 인한 위안화 강세 등의 대외적 여건,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강세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적정 가치에 근접해 있는 원화가 내년 상반기 유의미하게 절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매출은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면서 노무라는 달러/원 솟을 권고하고, 내년 1분기 환율이 1050 원, 연말에는 1030 원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 강세에 힘을 더해주는 또 다른 요인은 폭넓은 달러 약세 전망이다. 씨티는 내년 달러가 20% 절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 원화 강세 전망대로 순탄할까

일각에서는 내년 원화 강세 모멘텀을 자극한 재료가 올해 하반기 동안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면서 폭넓게 포진된 리스크 요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우선 미-중 관계 낙관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무디스는 내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교역과 인권,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해 현 행정부와 현저하게 다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중국 경제는 교역, 기술, 투자 측면에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아시아 FX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아시아 통화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내년 말 달러/원 환율 전망치를 1045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전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도 중국과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계를 시험해보려고 할 수도 있어 테일 리스크에 대한 헤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강한 기대 랠리를 펼쳤던 아시아 주가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MSCI 아시아 태평양 주가지수는 올해 약 17%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MSCI 신흥국 아시아 인덱스 포워드 PER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아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상당히 반영된 측면이 커 추가 강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전망이 원화에 대해서도 12월 초순까지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코로나 발 불확실성이 다시 짙어지는 만큼 내년 원화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백신 보편화와 이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를 확인한 이후 환율이 빠지겠지만 국내 코로나 확산세와 변종 코로나 우려 등에 내년 초 환율은 오히려 상승 부담감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연초 환율이 비교적 강한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봤는데 달러/원 저점이 이미 현실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 원화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기관 보고서 및 FX POLL 참고한 달러/원 분기별 전망치:

기관명	2021 1Q	2Q	3Q	4Q
ANZ(12/2)	1090	1080	1070	1060
Barclays(12/2)	1080	1080	1100	1100
BOFA(11/22)	1090	1065	1055	1045
Citigroup(12/3)*	1098	1090	1078.67	1082.33
DBS(12/3)	1116	1116	1116	1115
Fitch Ratings(12/8)	-	-	-	1070
Goldman Sachs(11/10)*	-	1100	1090	1070
ING(11/19)	1090	1080	1060	1040
JPMorgan(11/27)	1080	1070	1060	1050
MUFG(12/3)*	1120	1113.33	1103.33	-
NOMURA(12/8)	1050	1040	1035	1030
Scotia(12/16)	1080	1080	1060	1060
Standard Chartered(12/3)*	1100	1093.33	1083.33	1053.33
SG(12/2)	1120	1125	1130	1140
Westpac(12/11)	1130	1115	1110	1100

* GS 3/6/12개월, MUFG 1/3/6개월, Citi · SC 1/3/6/12개월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21 달러/원 전망 ②)-경상수급 vs 공격적 해외투자..당국은 건전성 관리 초점

(※ 이 기사는 12월 28일 작성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글로벌 외환시장 추세가 실수급에 따른 거래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급 영향력은 한층 커졌다.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선방한 한국 수출이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 회복이 정상화되면서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650억달러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600억달러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이보다 낙관적인 630억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가 기조적으로 정착되고 이와 관련된 달러 수요로 양방향 외환 수급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 해외투자 비중 목표를 55%로 확대하기로 했다. 9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36.6%이며, 투자 자산은 주식 62.1%, 채권 14.3%, 대체투자 23.5%로 구성돼 있다.

삼성선물은 국민연금 발 달러 수요를 연간 약 40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에 더해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외화 주식 순매수(매수-매도) 결제 규모는 약 194억달러, 외화 채권 순매수 규모는 약 124억달러로 총 318억달러에 이른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집산되는 이 데이터는 연기금 등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의 증권투자 결제금액으로 구성돼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삼성선물은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는 대부분 환 노출을 택할 것임을 고려하면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향후에도 외환시장의 주요한 수급 주체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전반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을 좇기 위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원화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이같은 수급을 감안하면 원화가 일방적으로 강세로 가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외환 수급 구도가 올해보다는 다소 공급 우위로 형성되더라도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외환 당국, 해외투자발 변동성 주시

코로나 19 공포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지난 3월 증권사들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률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달러 수요가 갑자기 몰리자 달러/원 스왑 포인트가 추락하고, 환율은 폭등하

는 등 외형상으로는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상치 않은 비은행권의 달러 수요에 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외환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비은행권의 외환 건전성 규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5일 국제금융학회 동계 세미나에 참석해 "외환위기 문제는 대외채무 상환과 만기 연장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은행권의 외채 관리에 많은 부분을 집중했는데 지난 3월 상황을 보면 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반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4천억달러가 넘는 순대외채권 규모에도 국제금융시장이 어려운 시기 대외자산이 환류되기보다는 해외자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화 수요만 더 늘어나는 현상이 초래됐다면서 "외화 유동성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내년은 금융과 실물경제 괴리가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현재 형성된 시장 기대가 틀어지면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을 텐데 지난 3월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점)-채권시장 '200조 국채 시대' 예감..정교한 트레이딩 전략 필요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9조 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에 대한 채권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0조원 국채 발행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 지속에 따른 대규모 물량 공급이 '뉴노멀'(New

Normal)로 부각되면 수익률 곡선 등을 활용한 정교한 트레이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200 조원 국채 발행 시대 열릴까

지난 29일 정부는 9 조 3 천억원 규모의 3 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 차 재난지원금으로 배정했던 3 조 4 천억원에 더해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 천억원, 내년 목적예비비 4 조 8 천억원, 기금 변경 자금 5 천억원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초반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재난지원금 집행 이후 정부의 목적예비비는 2 조 2 천억원만 남게 되는데 코로나 19 확산 대응 등 추가 자금 조달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은 내년과 그 이후의 상황 변화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반영해 운용 전략에 녹여 내느냐에 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총 174 조 5 억억원으로 올해(174.5 조원)보다 1 조 9 천억원 늘었다. 숫자로만 보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추세가 관건이다. 정부의 재정 확장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단순히 올해 시장 상황만 놓고 적정 시장금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시장은 당장 내년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이후에 국채 발행 규모가 원상복구될 것인지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에는 200 조원 국채 발행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며 "현재 시장의 가격들은 매년 200 조원 이상의 국채가 발행되는 시대를 반영해 나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B 시중은행 이자율 딜러는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돼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돼 경기가 나빠지면 더 많은 재정 부담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 있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연초에 높았던 시장금리가 연중에 통화정책과 연동하며 큰 폭으로 하락해 연말에 큰 자본이익을 보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건 캐리 장인데 캐리 장에서는 올해처럼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그동안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하우스별로 목표수익이 커졌을 텐데 이걸 과연 캐리로만 메울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는 곧 기회'..트레이딩 전략에 달렸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보는 시장 참가자들도 적지 않다.

지난 수년간 3/10년, 5/10년, 10/30년 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히 붙으면서 사실상 방향성 트레이딩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커브 스티프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결국 전략 선택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0년물, 30년물 금리 스프레드도 외국처럼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장기 스프레드 전략을 연구해 베팅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가 더 인하되지 않고 인상된다면 커브는 계속 스티프해지다가 플랫폼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 구간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겠지만 10/30년 구간은 확실히 변동성을 주며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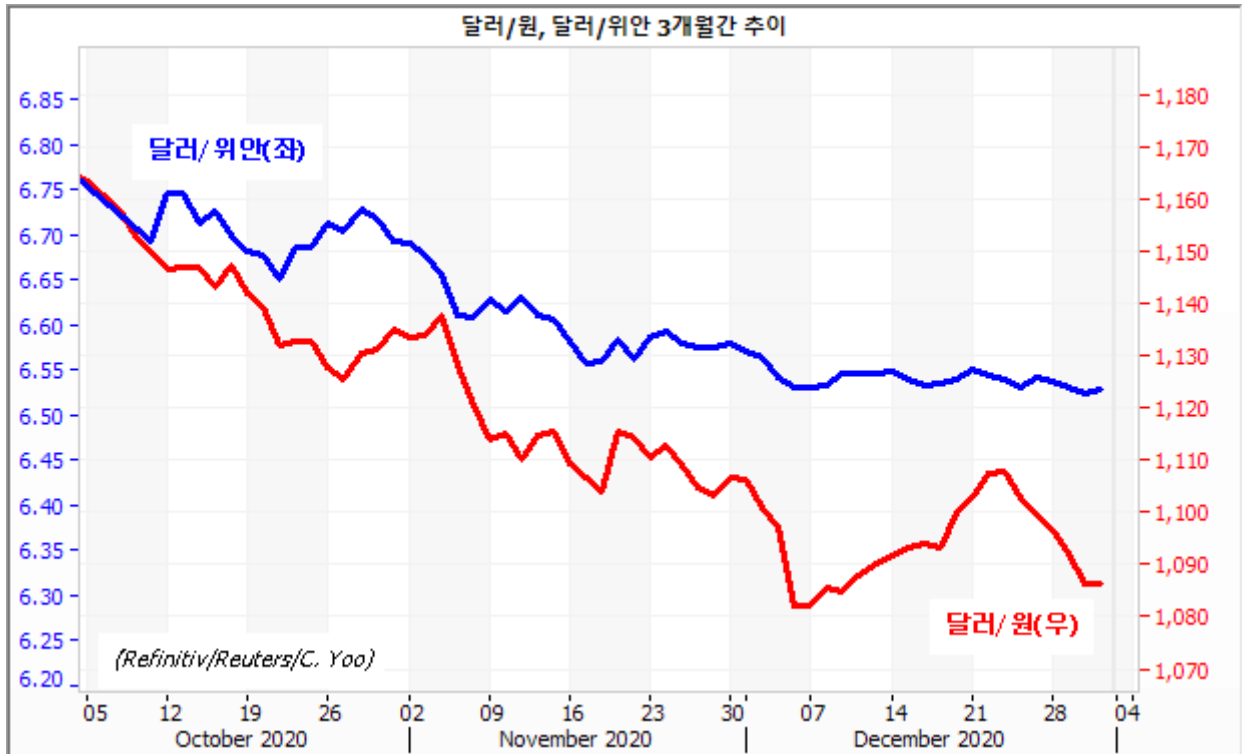
D 증권사 채권 딜러는 "커브가 급격히 플랫폼됐던 그동안에는 한은의 통화정책을 보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일단 잡히는 것부터 사면 됐다"며 "앞으로는 시장이 움직일 때 커브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성과를 가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된 곳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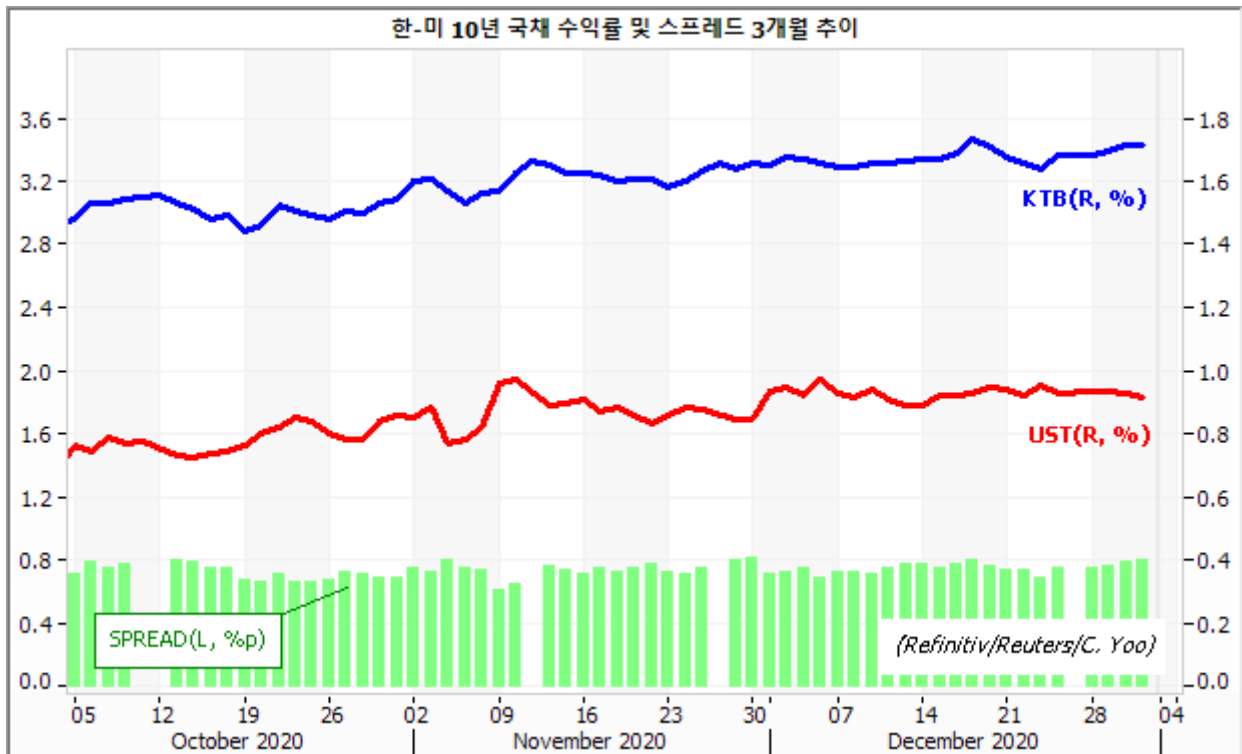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해외 기관 보고서 및 FX POLL 참고한 달러/원 분기별 전망치:

기관명	2021 1Q	2Q	3Q	4Q
ANZ(12/2)	1090	1080	1070	1060
Barclays(12/2)	1080	1080	1100	1100
BOFA(11/22)	1090	1065	1055	1045
Citigroup(12/3)*	1098	1090	1078.67	1082.33
DBS(12/3)	1116	1116	1116	1115
Fitch Ratings(12/8)	-	-	-	1070
Goldman Sachs(11/10)*	-	1100	1090	1070
ING(11/19)	1090	1080	1060	1040
JPMorgan(11/27)	1080	1070	1060	1050
MUFG(12/3)*	1120	1113.33	1103.33	-
NOMURA(12/8)	1050	1040	1035	1030
Scotia(12/16)	1080	1080	1060	1060
Stadard Chartered(12/3)*	1100	1093.33	1083.33	1053.33
SG(12/2)	1120	1125	1130	1140
Westpac(12/11)	1130	1115	1110	1100

* GS 3/6/12개월, MUFG 1/3/6개월, Citi · SC 1/3/6/12개월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